

“빚 못갚겠다”…‘개인 파산’ 봇물

광주·전남 을 신청건수 3배이상 늘어

신용회복위 워크아웃 상담 하루 40건

불황으로 한계상황에 물리면서 ‘더 이상 빚 갚을 여력이 없다’며 경제적 사망선고인 ‘파산선고’를 자청하는 광주·전남지역민들이 1년새 3배이상 늘었다.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기 직전, 구원의 손길을 찾아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는 개인 워크아웃 상담이 하루에 40건 쇄도하는 등 지역 서민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일 광주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광주·전남의 개인파산 선고 건수는 1만40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천326건)에 비해 3.1배나 증가한 것으로, 불황과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 최근 지역의 실물경제까지 크게 위축된 결과

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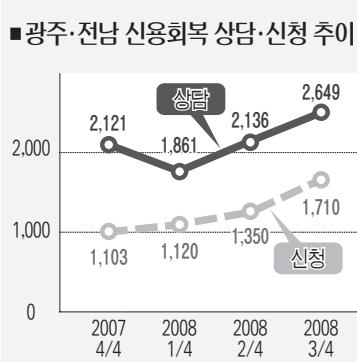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지갑이 앓아 진 마당에 금융권 이자와 물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역 서민들이 대거 ‘빚더미’로 내몰리고 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들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3·4분기 광주·전남의 워크아웃 신청건수는 1천7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인 2·4분기(1천350건)보다 26.7%(360건) 증가한 것으로, 1년 전인 지난해 3·4분기(1천152건)에 비해 48.4%(558건)나 늘었다.

특히 광주·전남은 서민들의 생활 고가 깊어짐에 따라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에서 상담을 받는 사례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광주·전남에서만 106명이 신청서를 냈다.

한편 10월 말 현재 전국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9만9천218명으로, 1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개인 워크아웃 상담 건수도 10월 말까지 36만5천23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25만1천948명)를 이미 넘어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ju.co.kr

3·4분기 광주·전남의 워크아웃 관련 상담건수는 2천649건으로, 지난해 3·4분기(1천856건)보다 42.7% 증가했다. 휴일을 제외하면 7~9월 쇠 달간 하루 평균 40명 이상이 신용회복 위를 찾은 셈이다.

또 이같은 상담건수는 전분기인 2·4분기(2천136건)보다 24.0%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여파로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



기아차 ‘독도아카데미’ 선발

기아차는 이달 26일까지 펀카 홈페이지(www.funkia.kr)를 통해 내년 3·1절에 독도를 탐방할 ‘독도국제수호 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 제7기’를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독도 수호 의지가 있고 독도 문제를 공론화할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류전형을 통해 내년 1월 최종 인원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美 공장 건설 일시 중단

판매 부진 여파 완공 시기 1년 늦추기로

금호타이어가 미국 남동부 조지아 주 메이컨시에 건설중인 공장의 완공 시기를 최소 1년 늦추기로 하고 현지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타이어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미국내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대규모 감산에 돌입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건설비용이 급등한데 따른 것

이지만 미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공사 연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공장건설 연기 방침에 따라 지난 10월말부터 부대 및 토목공사가 미루어진 상태에서 현지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과관돼 있던 직원들도 필수요원만 남김채 나머지 인원은 대부분 철수시켰다. 또 현지에서 고용한 사무직원들에 대해서는 지

난 11월25일자로 조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정리작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5월12일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 오세철 회장, 소니 피류 조지 아주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섯 번째 해외 생산기지인 조지아 공장 기공식을 갖고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공사 연기 방침에 따라 일단 완공시기는 2010년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무리한 수사 없어야”

이준보 광주고검장

전남도 ‘일자리 창출’ 나선다

노사정협 민간위원 늘려 ‘일자리 창출 협의체’ 출범

노사관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직된 ‘전남도 노사정협의회’가 민간위원 참여를 대폭 확대해 ‘일자리 창출 협의체’로 출범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협의체로 탈바꿈한 후 3월 첫 회의를 갖는 이번 노사정협의회의 특징은 민간위원이 대폭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되며, 지난 5월 체결된 노사관계 협약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노사정협의회의 민간대표는 기존 3명이었지만 7명으로 크게 늘렸고 노사대표는 3명, 기관대표는 3명이 참여하며 당연직 공직자 위원을 제외한다.

이 고검장은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방문, 김종률 지청장과 겸사를 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제불황으로 기업이 어려운 만큼 무리한 압수수색 등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직원들을 격려한 뒤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봤다.

이준보 광주고검장(사시 21회)은 2일 “검찰의 수사로 기업활동이 불필요하게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방문, 김종률 지청장과 겸사를 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제불황으로 기업이 어려운 만큼 무리한 압수수색 등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직원들을 격려한 뒤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봤다.

/연합뉴스

광양에 태양광 부품 생산 공장

市-(주)유니벡 1천억 투자 MOU 체결

광양에 태양광 부품공장이 들어선다.

광양시는 2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주)유니벡과 종마 공유수면 매립지내에 진공 증착장비 및 태양광 부품소재 생산공장 건립에 관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

(주)유니벡은 경남 김해시 공장에

서 휴대폰·카메라 렌즈 및 태양광 부품과 장비를 생산하는 첨단산업업체로 1천억원을 투자해 종마 공유수면 매립지내 부지 2만6천324.7m²(7천 963.2평)에 태양광 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12월 1단계 및 사업 준공 및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1천억원의 매

출과 3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광양시는 이번 투자 MOU를 계기로 첨단산업 유치와 대규모 고용창출은 물론 제품을 전량 수출함으로써 연간 1만~2만t의 화물이 발생해 광양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김승호기자 chkim@

올 세금 감면 30조 육박

올해 개인과 기업 등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가 전체 국세의 15%가 넘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총 국세감면(조세지출) 규모는 29조6천321억 원으로 지난해(22조천652억 원)보다 29%(6조6천669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의 세금감면을 뜻한다.

국세 감면액은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국세감면비율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15.1%로 경증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국세감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대비 0.5%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2007년 평균 국세감면율은 13.2%였다.

이처럼 국세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기존 항목 감면액이 상당 수준 증가한데다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시행된 유가환급금 지원, 경기활성화에 대한 유류 세 환급 등 일시적인 요인이 겹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가 극복대책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는 3조7천500억 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국세감면비율은 13.6%로 낮아진다고 세정부는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tle@



전남농협 ‘협동대상’ 선정

무안 혁령농회 등 3곳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2008년 협동조직 대상 수상 단체로 무안군 운남면 ‘혁령농회’와 곡성군 육과면 ‘무창부녀회’, 해남군 북평면 ‘동해 팜스테이 마을’을 선정, 2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사진〉

해남군 북평면 동해마을은 ‘김치마을’이라는 브랜드로 농산물 판매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곡성군 육과면 ‘무창부녀회’는 우수농 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환경경기 팀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다. 무안군 운남면 혁령농회는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영농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

전남도 ‘일자리 창출’ 나선다

노사정협 민간위원 늘려 ‘일자리 창출 협의체’ 출범

노사관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직된 ‘전남도 노사정협의회’가 민간위원 참여를 대폭 확대해 ‘일자리 창출 협의체’로 출범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협의체로 탈바꿈한 후 3월 첫 회의를 갖는 이번 노사정협의회의 특징은 민간위원이 대폭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되며, 지난 5월 체결된 노사관계 협약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노사정협의회의 민간대표는 기존 3명이었지만 7명으로 크게 늘렸고 노사대표는 3명, 기관대표는 3명이 참여하며 당연직 공직자 위원을 제외한다.

이 고검장은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방문, 김종률 지청장과 겸사를 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제불황으로 기업이 어려운 만큼 무리한 압수수색 등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직원들을 격려한 뒤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봤다.

/연합뉴스

전문법률 상담

변호사 나봉수

직원 모집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실분을 모십니다.(남/여)

▶아파트

▶주택

▶숙박시설(모집)

▶토지

▶오피스텔/대세대

▶농가법인사업

▶기타

▶증권

▶보험

▶부동산

▶기타

▶기타